걸프戰이후의 OPEC행태와 '92년 국제유가 전망

1. 걸프戰 종전후 국제석유시장 특징

1991년도의 국제유가는 원활한 수급과 걸프전쟁 종전에 따른 불안 심리 해소로 적정가격 수준에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91년도 석유시장이 다음 3가지 안정 요인에 바탕하여 형성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즉, (1) 유가에 미치는 심리적 불확실성 축소, (2) 석유시장에 대한 사우디 지배력의 절대적인 우위, (3) 유가 결정에 관한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의사 교환 촉진이 바로 그것이다.

심리적 유가 상승이 극심했던 기간은 1990년 8월 2일(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부터 1991년 1월 16일(걸프전쟁 발발) 기간 동안이었다. 그 기간중 실질적 공급부족사태는 없었는데도 시장에는 10달러내외의 불안가격이 반영, 국제유가는 30달러내외를 지속하였다. 걸프전 발발 직후인 '91년 1월 17일 유가가 11달러 급락한 것은 이러한 불안 심리가 해소된데 기인한다.

걸프사태로 석유시장은 심리적 면역이 강해졌다. 이라크, 쿠웨이트 석유수출, 중단에 따른 4백만 *b/d* 이상의 갑작스런 공급 중단도 견뎌내었으며, 中東 유전지대에서의 전쟁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예상될 수 있는 석유시장의 돌발사태에 대한 소비국의 대응능력을 높였으며, 이는 유가 급등을 저지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1) OPEC내 사우디 지배력 강화

걸프사태를 계기로 *OPEC*(석유수출국기구)내에

OPEC과 사우디의 석유지표 및 정책 비교

	OPEC	사 우 디	(점 유 율)
매장량('90년말, 억배럴)	7,738	2,575	33.3%
원유생산량('91.10월, 백만b/d)	23.8	8.45	35.5%
지속생산능력('91.12월, 백만b/d)	26.3	9.0	34.2%
쿼타('91년 3월 감시위 배정)	2,229.8	803.4	36.0%
석유정책 : 물량 및 가격지지파 공존 1) 價格支持派 : 非中東 OPEC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인니 등) 2) 物量支持派 : 中東 OPEC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	친서방 온건·중립 석유정책 (점진적인 가격 증가 및 세계 석유수요 증가율에 따른 생산 증대)		

서 사우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었다. 금번 걸프사태에서 사우디는 증산 정책을 주도하였다. 사우디는 유가정책에서도 高油價보다는 점진적인 유가인상 정책을 선호한다.

사우디의 對外石油政策은 과거 행태를 통하여 나타난 바와 같이 강경-온건, 산유국-소비국간의 견제와 균형 유지에 촛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유가 하락시는 供給 調節者(*Swing Producer*) 역할을 수행('87, '89년)하여 유가방어에 앞서는가 하면, 증산정책을 통해 非*OPEC*을 견제하고('86년 유가 전쟁) 이란-이라크종전 직후의 *OPEC*내 강경파 입지를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능력은 사우디가 세계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사우디의 石油자원 비중은 대단하다. *OPEC*內 석유 매장량 점유율 33%, 생산능력 34%, 산유량 35% 그리고 쿼타에서 36%를 점하고 있다.

(2) 소비국-산유국의 석유시장 안정화 노력

걸프사태는 석유시장 안정화에 대한 산유국-소비국간 대화 움직임을 촉진시켰다. 프랑스와 베네수엘라 양국은 '91년 5월 석유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소비국과 산유국간의 대화를 제기한 바 있으며 양국의 주최로 '91년 7월 파리에서 소비국-산유국 석유 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프랑스-베네수엘라 양국은 소비국-산유국간의 석유시장 안정화 목적이 걸프사태와 같은 급격한 유가 변동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고유가는 소비국의, 低유가는 산유국의 경제개발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파리 총회는 *IEA*, *OPEC*을 비롯, 개별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파리총회는 양블록간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도출없이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양자간에는 공식적인 채널이 구체화되어 가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최근 들어 *EC*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범유럽에너지공동체」의 형성, 「유럽에너지헌장」등은 소비국-산유국의 석유시장 안정화 노력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OPEC*은 양 블록간 대화에 적극적이다. *OPEC*은 '91년 6월 총회에서 소비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세계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석유수요 및 공급 보장, 양블록간 석유 및 에너지정책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산유국의 대소비국 하류부문 진출, 소비국의 대산유국 상류부문

걸프사태를 전후한 OPEC의 쿼타(만b/d) 및 유가결정

적 용 기 간 개 최 일 시	('90년 하반기-'91년 1/4분기) ('90년 7. 26-27) 87차 총회	(2/4-3/4분기) ('91. 3. 11) 시장 監視委	(4/4분기) (9. 24-25) 시장 監視委	('92년 1/4분기) (91. 11. 26-27) 90차 총회
사우디아라비아	538.1(23.92)	803.4	-	-
이 란	314.0(13.95)	321.7	-	-
이라크	314.0(13.95)	0	-	-
쿠웨이트	150.0(6.66)	0	-	-
U A E	150.0(6.66)	232.0	-	-
카타르	37.1(1.16)	39.9	-	-
中東 OPEC	1,503.2(66.84)	1,397.0(62.65)	-	-
나이지리아	161.1(7.16)	104.0	-	-
리비아	133.3(5.48)	142.5	-	-
알제리	82.7(3.67)	82.7	-	-
가봉	19.7(0.88)	28.5	-	-
베네수엘라	194.5(8.64)	223.5	-	-
에콰도르	27.3(1.21)	27.3	-	-
인도네시아	137.4(6.11)	144.3	-	-
非中東 OPEC	745.9(33.16)	832.8(37.35)	-	-
計	2,249.1 (100)	2,229.8 (100)	2,365.0 (100)	2,365.0 (100)
기준유가	$21/B	$21/B	$21/B	$21/B

진출, 환경적 관심에 대한 상호 협력 그리고 석유의 자유무역 제고 및 소비국에서 추진중인 석유소비 억제 정책의 철폐를 제시하고 있다.

2. 걸프戰 종전이후 OPEC 석유정책

*OPEC*는 걸프戰 종전이후 급격한 유가하락에 대비해 이라크가 불참한 가운데 시장감시위원회를 개최('91년 3월)하였다. 여기서 '91년 2/4분기 쿼타를 2,230만*b/d*로 결정, 기존쿼타 대비 20만*b/d*를 감축하였으며 동시에 非*OPEC*에게도 감산조치를 촉구하였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에는 쿼타를 배분하지 않는 한편, 사우디의 쿼타는 대폭 증대 기존의 538.1만*b/d*(*OPEC*내 점유율 : 24%)가 803.4만*b/d*(점유율 : 36%)로 늘어났다. 89차 총회('91년 6월)에서도 기존 쿼타를 3/4분기까지 연장하고 기준유가 $21방어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91.9.24-25)에서는 '91년 4/4분기 생산쿼타를 2,365만*b/d*로 합의하였는데, 그 특징은 회원국별 쿼타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90차 *OPEC*총회(11/26-27, 비엔나)에서는 (1) '92년 1/4분기 *OPEC*생산상한은 금년 9월 *OPEC* 감시위에서 결정한 현재의 2,365만*b/d*를 그대로 연장 적용하고, (2) '92년 2/4분기 생산상한은 '92년 2월 *OPEC* 감시위에서 논의키로 하며, (3)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 *OPEC* 의장은 監視委 이전이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4) 21$/*B OPEC* 기준가격 목표달성을 포함한 '90년 7월 *OPEC* 총회의 합의내용을 재확인 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재확인된 「'90년 7월 합의원칙」이란 (1) 생산량과 가격의 동시적 최대화를 통한 수입의 최적화, (2) 어떤 국가가 쿼타만큼 생산하지 못할 경우 기타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생산함, (3) 국가별 쿼타는 생산능력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년 2/4분기 생산상한 설정의 방향을 예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92년 2/4분기 시장상황에는 불확실성이 많으므로 현단계에서 *OPEC*가 동 기간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과 문제 소지가 많았다고 보인다. '92년 2/4분기의 불확실성으로는 쿠웨이트의 생산수준, *UN* 결의에 의한 이라크의 수출재개여부, 혼미한 소련의 석유산업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상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기 생산상한은 경제 제재중인 이라크(생산 능력 1.6백만*b/d*내외)를 제외한 *OPEC*의 현재 생산수준과 근접하므로 실질적으로는 *OPEC* 산유국들이 내년 1/4분기까지 생산능력껏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OPEC 행태의 평가

과거 1, 2차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소비국의 탈석유 정책 및 소비절약으로 대 *OPEC* 원유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유가도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OPEC*은 油價上昇策으로 64차 총회('82년 5월)에서 쿼타 제도를 도입하였다. 쿼타 조정은 66차 총회에서 1,850만*b/d*, 67차 총회에서 1,750만*b/d*, 그리고 70차 총회에서 1,600만*b/d*로 감소되었다. 이같은 쿼타축소는 세계 석유 수요 감소와 非 *OPEC* 산유국 증대에 따른 유가하락 압력을 저지하는데 있었다. 현재 쿼타는 2,365만*b/d*이다.

또한 80차 총회('86년 12월)에서는 기준 유종이었던 사우디産 *A/L*원유에서 탈피, 신규 고정유가제도를 도입, 이를 18$/B로 결정하였다. 이 기준유가는 7개 유종을 *Basket*으로 구성(*OPEC* 유종 : 6, 非 *OPEC* 유종 : 멕시코의 *Isthmus*), 품질별로 지역 유종을 선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준 유가는 87차 총회에서 3달러를 인상, 현재는 21$/B이다.

걸프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은 외면적으로는 *OPEC*가 추구하는 시황이긴 하나 이는 *OPEC*의 결속력 강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취약성을 안고 있다. *OPEC*이 추구하는 유가수준은 전 회원국들의 내부 결속력 강화, 즉, 쿼타 준수를 통하여 현물유가를 기준유가(혹은 그 이상)에 일치시키는데 있다.

여기서는 *OPEC*가 설정하는 쿼타와 기준가격(*OPEC basket*) 그리고 *OPEC*의 실제 산유량과 현물유가(*OPEC Basket*)라는 4가지 요소를 이용, *OPEC*의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OPEC*의 바람직한 정책 목표달성은 쿼타 준수와 기준유가가 동시에 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OPEC* 행태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OPEC*의 행태지수 = (*OPEC Basket* 현물 유가/기준유가) × (쿼타/실산유량)

상기 *OPEC*의 행태 지수가 1이상으로 증가하면 할

수록 OPEC에 유리한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이 형성되는 반면, 소비국의 반발(例 : 석유 대체 및 소비절약)이 예상되어 향후 OPEC에게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1以下로 하락하면 할수록, 소비자 시장(*Buyer's Market*)이 형성되나, OPEC의 불만은 고조되어 결속력을 강화시킬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예 : 산유량 감축 혹은 기준유가 변경). 따라서 "지수1"(산유량=쿼타, 현물유가=기준유가)이 OPEC에게 최적의 균형상태라 볼수 있다.

OPEC의 「행태지수」는 '90년 1월에 1.05를 보임으로써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전에는 가장 높았는데, 이는 동절기 성수기에 따라 강세 시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OPEC의 '90년 1월중 산유량은 22.8백만*b/d*로 쿼타(22.08백만*b/d*)대비 70만*b/d* 높았으나 현물유가는 19.6$/B로서 기준유가(18$/B) 대비 1.6$/B 이 높았다. 그러나 '90년 2/4분기 들어 지수는 급락되었으며 4-5월중 0.80을 나타내었다. 이는 하절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OPEC 산유량이 증대되어 약세시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OPEC 생산은 4월 23.8백만*b/d*, 5월 23.7백만*b/d*로 각각 쿼타대비 170만*b/d*, 160만*b/d* 초과되었고, 현물유가는 4월 15.55$/B, 5월 15.40$/B로 기준유가 대비 2.5$/B 낮았다. '90년 6월에는 0.74로 가장낮은수치(실산유량 : 23.6백만*b/d*, 현물유가 : 16.35$/B)를 기록하였는데 그 직후 걸프사태가 발생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PEC의 「행태지수」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라 급격히 상승, '90년 10월에는 1.64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91년 들어 1월중 1.02로 급락하였는데, 이는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승리와 단기전이 예상됨으로써 심리요인이 급격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지수는 걸프전 종전이후의 OPEC 쿼타정책과 안정 시황에 힘입어 '91년 10월이후 0.9-1.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걸프사태중 OPEC 「행태지수」가 1이상으로 급등한 것은 OPEC의 내부 결속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이후 0.8로 급락하였다. 이에 따라 '91년 2/4분기에는 쿼타를 22.30백만*b/d*(이전

〈참고〉

과거 예를 볼때, OPEC는 유가 약세시에 결속하고 유가 강세시는 이완되곤 하였다. 「OPEC 행태지수」를 이용하여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OPEC 行態 指數」와 석유시장 동향

OPEC 行態 指數	소비국 반응	OPEC 대응방안	비 고
1.0 이상	불만족 高油價 대응 강화	행태지수 하향조정 -산유량 증대 혹은 -기준가격 인상	가격파와 물량파의 대립
0.9-1.0	만 족	만 족 의사결정의 신속, 합의 준수	'91년 9월-12월
0.8-0.9	만 족	불 만 대응책 강구 노력	시장 평가에 관한 견해차이
0.8 이하	만 족 불확실성 증폭	불만 심화 사우디 主導의 대응책 실시	상호 비난 긴장 고조 '90년 6월

걸프사태 전후의 OPEC의 행태 지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0년	1.05	0.98	0.90	0.80	0.80	0.74	0.85	1.34	1.57	1.64	1.46	1.19
'91년	1.02	0.83	0.82	0.85	0.86	0.80	0.84	0.85	0.88	0.99	0.96	0.95

OPEC 기준유가 : $18/b('90년 1월-7월), $21/b('90년 8월-'91년 12월)
OPEC 쿼타 : 2,208.6만*b/d*('90년 1월-7월), 2249.1만*b/d*('90년 8월-'91년 3월)
2,229.8만*b/d*(4월-9월), 2365만*b/d*('91년 10월-12월)

쿼타 : 22.50백만*b/d*)로 감축함으로써 이 지수는 상승하였다. 동 기간이 계절적인 비수기인 점을 감안할때, *OPEC*의 쿼타 감축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절기 진입에 따른 석유수요 증대를 예상, '90년 4/4분기 쿼타와 '91년 1/4분기 쿼타를 상향 확대시킨 것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 된다. 과거의 *OPEC* 행태를 분석할 때 결속력이 가장 높은 때(의사 결정의 신속, 합의 준수)는 *OPEC*「행태지수」가 0.9-1.0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4. 1991년 유가 및 석유수급 실적

걸프사태는 '90년 하반기부터 '91년 전 기간에 걸쳐 세계석유시장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쳤다. 원유가격(*OPEC* 평균 현물유가, 이하동일함)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직후 8월부터 10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91년 2월에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그후 16~18달러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91년 12월초 현재 18$/B선을 유지 중이다.

'91년 세계 석유 수급도 걸프사태에 영향을 받았다. 주요한 특징은 걸프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둔화와 절약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공급이 0.2백만*b/d* 초과하였다는 점이다. '91년 세계 석유수요는 65.9백만*b/d*로 '90년 수준에서 머물것으로 보인다. 이중 자유세계 소비는 54백만*b/d*로 전년대비 0.7%의 미증이 예상된다. 반면, 공산권은 3.3%의 감소세가 전망된다.

자유세계중 *OECD* 수요는 38백만*b/d*로 전년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도국은 16.0백만*b/d*로 전년대비 2.6%(0.4백만*b/d*)의 증가가 예상된다. 공급은 *OPEC* 및 공산권에서의 생산 감소에

OPEC의 평균유가

(단위 : $/B)

	1 월	2 월	3 월	1/4	2/4	3/4	4/4	연 간
1989	15.20	15.26	16.71	15.73	17.07	16.02	17.44	16.56
1990	19.04	18.06	16.87	17.99	14.30	23.57	29.23	21.27
1991	21.24	16.21	16.34	17.93	16.41	17.76	(19.0)	(17.8)

세계 석유수급 밸런스

(백만b/d)

	1990	1991				
		1/4	2/4	3/4	4/4	평 균
수요	65.8	67.1	65.0	64.9	66.7	65.9
OECD	38.0	38.5	37.0	37.4	39.0	38.0
개발도상국	15.6	16.1	16.0	16.0	16.1	16.0
공산권	12.3	12.5	12.0	11.5	11.6	11.9
공급	66.5	66.7	65.3	65.9	66.7	66.1
OECD	15.9	16.5	15.8	16.0	16.5	16.1
비OECD	24.0	23.6	23.3	22.7	22.6	23.0
기타공급	3.6	3.6	3.6	3.6	3.6	3.6
OPEC 원유	23.0	23.0	22.6	23.6	24.0	23.3
재고변동	+0.7	−0.4	+0.3	+1.0	0.0	+0.2
(상업육상재고일수)		(55)	(56)	(56)	(54)	
1990 재고변동		+0.0	+2.1	−1.1	+1.4	+0.7
(상업육상재고일수)		(54)	(56)	(55)	(54)	

資料) *PEL* 등 참조

註) 1. 非*OECD* 공급은 공산권 포함

2. 기타공급은 *OPEC*의 *Condensates/NGL*, 정제손실 포함

따라 66.1백만 b/d를 전년대비 0.6%의 감소가 예상된다.

－OPEC 원유 공급은 23.3백만b/d로 예상되며 이는 '90년 대비 0.3백만b/d 증가에 불과한 것임. 한편, 개도국 공급은 16.0백만b/d로 전년대비 0.3백만b/d 증가, 공산권 생산은 11.9백만b/d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대비 0.4백만b/d가 감소되는 것임.

5. 1992년 석유 수급 및 유가 전망

(1) 세계 석유수급

[세계 석유수요 : 1.2백만b/d 증가]

'92년도 석유 수요는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견실한 신장세가 예상된다. '92년 세계 석유수요는 67.1백만b/d로 전년대비 1.8% 증가할것으로 보인다. 이중 자유세계 석유수요는 55.5백만b/d로 '91년 대비 1.9%(1.5백만b/d)의 신장세가 기대된다.

특히 선진국에서 견실한 증가세가 전망된다. OECD의 '92년 수요는 38.7백만b/d로 '91년 대비 1.8%(0.7백만b/d)의 견실한 증가가 예상된다. 美國의 석유수요는 '91년도 16.7백만b/d에서 '92년에는17.1백만b/d(OECD중점유율 : 44%)로2.4%가 증가하나 서유럽은 13.6백만b/d로 전년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도5.6백만b/d가예상, 전년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LDC 수요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신장세가 기대되며'91년16.0백만b/d에서'92년16.8백만b/d로5%의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LDC중 아·태지역 수요는 가장 높은 증가가 전망되는데 이 지역 '92년 석유수요는 5.0백만b/d로 전년대비 8.7%의 급속한 신장세가 예상된다.

[非 OPEC 생산 : 정체]

'92년 석유공급은 상당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92년 세계 석유공급은 67.4백만b/d로서 전년대비 2.0%의 증가율이 기대된다. 이중 OECD 산유량은 16.6백만b/d로 전년대비 0.4백만b/d 증가되나美國의석유생산은9.0백만b/d로전년대비0.1백만b/d의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영국(2.2백만b/d), 노르웨이(2.1백만b/d) 및 캐나다(2.0백만b/d)에서 미증이 기대된다.

[소련생산 : 0.9백만b/d 감소]

소련의 석유생산은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소련의 '91년 석유생산은 10.2백만b/d로 추정되나 '92년에는 9.3백만b/d로 9%(0.9백만b/d)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동유럽 및 베트남 등의 석유

1992년 세계 석유수급 밸런스

(단위 : 백만B/D)

	1991	1992				
		1/4	2/4	3/4	4/4	연 간
수요	65.9	68.6	65.8	66.3	67.8	67.1
OECD	38.0	40.0	37.7	38.0	39.5	38.7
개도국	16.0	16.7	16.6	16.8	16.9	16.8
공산권	11.9	11.9	11.5	11.5	11.4	11.6
공급	66.1	66.8	66.7	67.6	68.1	67.4
OECD	16.1	16.7	16.3	16.2	16.8	16.6
非OECD	23.0	22.5	22.3	22.3	22.2	22.3
기타공급	3.6	3.6	3.6	3.6	3.6	3.6
OPEC 원유	23.3	24.0	24.5	25.5	25.5	24.9
재고변동	+0.2	−1.8	+0.9	+1.3	+0.3	+0.3
(상업육상재고일수)		3,588	3,650	3,729	3,762	
(백만배럴)						
재고일수		55	55	55	54	

〈資料〉 1. 需給밸런스는 Brent 油價 20$/B을 전제(PEL)
2. 非OECD는 공산권 포함
3. 기타공급은 OPEC의 Condensates/NGL, 정제손실 및 통계오차

생산은 제자리에 머물 전망이다.

[對 OPEC 원유수요 : 1.6백만b/d 급증]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석유소비는 견실하게 증가하나 非 *OPEC* 공급은 정체되고 소련 석유생산은 감소됨으로써 *OPEC* 원유의 공급몫(對 *OPEC* 원유수요 : *Call On OPEC Crude*)은 기록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1992년 석유 수급의 특징이다.'91년 對 *OPEC* 원유 수요는 23.3백만*b/d*였으나 '92년도는 24.9백만*b/d*로서 6.9%의 급증이 예상된다.

- 對 *OPEC* 원유수요는 '92년 1/4분기에 24.0백만*b/d*, 2/4분기에 24.5백만*b/d*로 예상됨.
- '92년 하반기의 對 *OPEC* 원유수요는 25.5백만*b/d*로서 더욱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2) 유가 전망과 OPEC의 유가관리 정책

'91년 유가는 $18/*b* (*OPEC* 평균 현물유가 기준, 이하 동일함)로 추정된다. 한편, '92년도 유가는 *OPEC*의 석유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나 전반적인 강세 기조가 예상된다.

*OPEC*는 '92년 1/4분기 생산쿼타를 23.65백만*b/d*로 결정하였다. 동 기간 對 *OPEC* 원유 수요 전망치가 24백만*b/d*이상임 (*OPEC* 경제위원회 : 24.3백만*b/d*, 사우디 : 25.2백만*b/d* 주장)을 감안할 때, *OPEC*가 최대 산유량을 유지하여도 충족시키기 힘든 물량이다. 이에 따라 '92년 1/4분기 유가는 20$/B 내외의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혹한, 북해 유전 사고 또는 정유소 사고에 의한 공급장애 등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OPEC*의 당면 문제는 '92년 2/4분기 이후의 석유정책일 것이다. 동 기간은 비수기인 동시에 쿠웨이트의 1백만*b/d* 생산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의 對이라크 석유 수출의 추가 허용 조치도 변수이다.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본격적인 생산재개에도 불구하고 *OPEC*이 현재의 생산 행태(실질적인 자유방임생산)를 지속할 경우, '92년 2/4분기 유가는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OPEC*은 '92년 2월 시장 감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서 현재의 총량 쿼타체제를 국별 쿼타제제로 복귀시킬 가능성이 크다. '92년 2/4분기의 對 *OPEC* 원유 수요 또한 24.5백만*b/d*로 기록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OPEC*이 쿠웨이트, 이라크의 생산 재개에 맞추어 적절하게 쿼타를 책정할 경우, 내년 2/4분기도 견실한 유가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일한 잉여 생산능력을 가진 사우디가 공급 조절자(*Swing Producer*) 역할을 할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

'92년 하반기는 對 *OPEC* 원유수요 급증으로 석유수급이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석유시장은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본격적인 생산이 있어야 수급균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2년도 *OPEC* 평균 유가는 19~20$/B내외(또는 *OPEC Basket* 21달러 내외)가 유력하다. 즉, 1992년은 *OPEC*가 기준 가격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가격 목표를 달성하는 해가 될 것이다.

'92년도 *OPEC*의 주요 정책으로는 현재까지 선언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였던 기준가격의 유지가 부각될 수 있다. 대부분의 *OPEC* 회원국들이 생산능

주요 기관의 92년도 유가 전망

(단위 : $/B)

전 망 기 관	전 망 시 점	유 가	비 고
IMF	'91. 5	17.9	3개 유종 평균가격 (Brent, Dubai, ANS)
WEFA	'91. 7	19.8	사우디수출 복합단가
	'91. 10	18.0	A/L 현물가격
OECD	'91. 7	18.4	OECD(FOB) 수입가격
Herold社	'91. 8	22.0	WTI
PEL社	'91. 10	20.0	Brent
EIA	'91. 11	(저) 17-19	미국정유회사
		(중) 20	평균수입가격
		(고) 23	(FOB)

〈참 고〉

「OPEC 行態 指數」와 OPEC 원유생산 및 油價와의 관계

OPEC 원유생산 (백만b/d)	OPEC 行態 指數별 OPEC Basket 油價			
	0.8	0.8	1.0	1.1
2400	17.05	19.18	21.31	23.44
2450	17.40	19.58	31.75	23.93
2500	17.76	19.98	22.20	24.42
2550	18.11	20.38	22.64	24.91

(주) 1. 상기 표는 '92년 *OPEC* 기준가격 = $21/b, 쿼타 = 2,365백만b/d 전제
2. *OPEC Basket* 油價 = (기준가격 × 行態 指數 × 생산량)/쿼타
3. 기준가격 상승 또는 쿼타 감소는 동일 行態 指數하에서 현물 유가 상승을 유발함.
4. 물량정책(쿼타 변경 또는 생산량 증감)이 「*OPEC* 行態 指數」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정책(기준가격 변경)에 비해 미약함.
5. 「*OPEC* 行態指數」가 0.9-1.0을 유지하려면 :
내년 *OPEC Basket* 油價는 $19-22/B(즉, *OPEC* 평균 유가 $18-21/B)가 되어야 함.

력 한계에 도달하여 있기 때문에 쿼타 논란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즉, 쿠웨이트, 이라크 생산재개 = 사우디의 적절한 감산으로 균형유지 가능), 내년 하반기에는 일부 국가에서 *OPEC*의 기준 가격 인상문제가 활발히 제기될 것 같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용어해설

양허협상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각부문별 시장개방계획을 놓고 그 타당성및 수용여부를 논의하는 것. *UR*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계교역의 자유화범위를 넓히는데 있으므로 각국은 관세, 비관세, 열대산품 천연자원, 농업 등 자유화대상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장개방계획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양허계획(*offer list*)이라고 한다.

이 양허계획을 기초로 벌이는 양허협상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및 산업의 특수성등을 감안, 자유화계획의 타당성및 수용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대개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차등이 주어지게 된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대남 무장게릴라 31명에 의한 청와대습격미수사건과 이틀후에 북한이 美海軍 정보수집함「푸에블로호」를 납치한 것을 계기로 그해 5월 워싱턴에서 한미국방각료 회담을 열면서 정례화 되었다.

최근 제23차 안보협의회의가 11월20~22일 서울에서 개최됐는데,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하여 '92년도까지 주한미군현지발생비용(*Won Based Cost*)의 1/3의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액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시지원협정(*WHNS*) : *Wartime Host Nation's Support Agreement*) 에 서명하고 협정서 명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